

2023년 6월 11일 “여호수아(7) 농간에 대처한 이스라엘”(수 9:1-6; 18-21)

이스라엘은 아이성 패배라는 징계를 받고 위축되었지만 회개하며 여호와와의 전쟁을 다시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취하여 이제 남북으로 진군할 수 있는 요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1] 주변 민족들의 반응과 기브온의 침투

이스라엘의 승리에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경계하며, 연합군을 만들어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중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고 접근합니다(4-6 절).

여호수아는 이들 말을 듣고 보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고’(14 절) 내린 것입니다. 간혹 기브온 사람들의 농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기만 사건에 대해 백성들이 지도부를 원망하게 됩니다(18 후).

[2] 이스라엘의 대책

아간이 헤렘을 지키지 않아서 전쟁에 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때문에 헤렘을 못 지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19-21 절). 그러자 회중은 이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엮어진 상황을 함께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훌륭한 영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함께 늘 불화와 갈등이 따라왔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종결되었습니다(공급, 질병, 재앙 등으로).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9 장). 그런데 10 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에게 큰 승리를 베푸십니다. 이 공동체를 기뻐하신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의 실책을 이와 같이 타개할 수 있다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3] 죄와 잘못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삼상 2 장에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무시하며 제물을 갈취하였을 때,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삼상 2:30).

사 14:12 계명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탄을 대적하시는 이유는 자신을 높이며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기고 거짓 기만하는 자아도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약 4:6).

이런 이유로 어떤 신앙인들은 죄 짓지 않고 기록해야 함이 깊은 강박이 되어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자리, 또는 죄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때 신앙의 부요한 세계를 만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실한 사랑의 창이 열립니다. 흠이 많고 도덕적/사회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오 대상인 창녀와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를 보면서 내 죄가 아픈 사람은 내 인생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거기서 끝인 것 같았지만 재개된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유업의 땅, 아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은 실패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부가 얹어 놓은 상황을 백성들은 함께 지고 가겠다고 받아주었습니다. 불화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성숙하게 잘 대처한 것입니다. 그 결과, 10장에서 보실 상상 못할 대규모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엄청난 유업의 땅의 선물이 획득됩니다.

이 모든 것은 유업을 쟁취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각자에게 주실 유업의 길을 터득하고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국가적으로 당한 기브온 족속의 농간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만약 지도부의 말을 듣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 나 또는 타인의 죄에 대한 나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죄를 지으면 끝인가요? 또는 죄에 대해 둔감합니까? 아니면 형제자매의 죄의 결과를 함께 짊어지길 원합니까?